

지역 소식통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부안군은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방역활동 강화에 나섰다.

군은 지속적인 호우로 가축전염병 오염원이 떠 내려와 농가 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고 폭염까지 예고돼 있어 질병관리가 어려운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침수나 파손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긴급방역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축협 공동방역단 및 군 소독차량 등 가용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각 축종별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소독약 방역물품 등을 공급하고 축사 내·외부, 방역취약지역,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농가별 담당관제 운영으로 일일예찰 및 점검을 실시해 방역상황을 비롯한 시설물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유선이나 SMS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송창환 군 축산유통과장은 "축산농가들이 호우피해와 가축질병의 이중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강화

고창군이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화에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6회 이상 체납 수용가의 요금 징수를 매달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6회 이상 체납 수용가는 297건, 체납액은 5158만9000원이다.

앞으로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 전화와 문자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자동이체, 문자고지, 신용카드, 가상계좌납부 등 체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납부 제도를 홍보한다.

특히 3회 이상 체납 시 급수정지 예고 후 단수 조치는 물론 고액·상승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도 실시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낙후된 시골마을 변신 중

정읍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지역별 특화 정주기반 확충·인프라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읍시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 최근 낙후된 시골 마을과 읍·면 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산어촌 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유지와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908억(국비 70%, 지방비 30%)을 확보해 15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15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차사업(5개 지구)으로 추진 중인 신태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80억)과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59억), 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54억), 입암면·칠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각 40억)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로경관 조성과 문화 복지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태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80억)을 통해 현 읍사무소 부지에 사업비 56억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1,939㎡ 규모의 행정문화복합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다. 노후된 읍사무소를 철거하고 전 계층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 환경과 주민센터 기능 외에 문화기능 등을 접목한 복합기능을 갖춘 주민 생활 밀착형 시설로 건립한다.

올해 2월 실시실제 용역을 착수해 연말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11월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센터 용도와 면적, 시설계획을 최종결정하는 등 설계부터 준공까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신규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감곡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센터 공간 조성과 면 지역 가로장미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업계획 발굴을 위해 지역 주민과 의견을 나누고, 합의된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감곡면 동곡마을(5억)과 진교마을(5억), 입암면 봉양마을(3억) 등 3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신규 마을 만들기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지속적인 문화와 소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관 생태를 유지해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품격있는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농촌 정주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공동체 강화와 주민소득 증대까지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읍 지역사회 건강조사 시행

10월31일까지 900명 조사

정읍시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역의 건강통계를 산출하고 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25개 보건소에서 일제히 진행되는 조사다.

조사항목은 18개 영역 142개 문항으로 흡연과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와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사회 물리적 환경 등 일상생활 속 건강에 대한 문항 등이다.

조사는 정읍시 표본 가구로 선정된 48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원 등의 후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조사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지역에 필요한 건강정책 수립과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중한 근거 중심의 자료로 활용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만원의 약속으로 행복 키우세요"

21일까지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 지원

정읍시가 재해로부터 소외 이웃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경제적 이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비 민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정읍시와 정읍우체국, 전북사

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자원봉사센터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재해로 인해 사망·수술·입원 시 입원비와 수술비, 위로금 등을 보장 지원해 주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이다.

시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로 마련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타금으로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비 1인

당 1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정읍우체국 또는 지역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21일 이후부터는 자부담 1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유진섭 시장은 "만원의 행복 보험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나 불의의 사고 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남은 기간 해당 대상자들이 모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피해 복구 구슬땀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지난 17일 최근 내린 폭우로 순창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순창군 유등면 일원을 방문하여 수해 지역 복구 지원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 복구 지원에는 정읍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신문선, 여성회장 송정순) 60여명이 참석해 순창군 의용소방대연합회와 합동하여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 도로유실 지역 복구 작업, 침수 주택 토사제거 및 세척활동 등 침수피해 복구활동을 펼쳤다.

수해복구에 나선 의용소방대연합회장(신문선 송정순)은 "작은 도움이지

만 빠른 복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백성기 서장은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정읍의용소방대 연합회에 감사하다"며 "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 활동 시 현장 안전 담당관(의용소방대원)을 지정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심원면,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고창군 심원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태성)는 지난 14일, 관내 26개소 경로당과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펼쳤다.

고창군 심원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태성)는 지난 14일, 관내 26개소 경로당과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펼쳤다.

이날 공중이용시설 방역소독에 참여한 자율방재단 10여명은 방역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문고리와 수도꼭지 손잡이와 같은 손이 자주 닿는 곳을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는 등 공중이용시설 방역소독에 힘썼다. 심원면은 이와 같은 방역소독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으며, 각 경로당과 공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자체 방역을 상시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공무원·주민, 수해복구 일손돕기 '한마음'

폭염특보가 이어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고창군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손길은 집중호우 수해 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고창군 고창읍(읍장 봉원영)이 지난 14~15일 고창읍 자율방재단(사무국장 김현수)과 밀알회(회장 박래영) 등 관내 봉사단체와 연계해 집중호우(7~8일)로 인한 피해 주택에 대한 대민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집중호우로 침수되거나 지반이 무너져 피해를 입은 주택과 텃밭 3개 가구에 중장비와 지원봉사 인력 20명이 참여해 무너진 축대를 보수하고 주택에 유입된 토사 등을 정리했다.

앞서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도 지난 13일 성내면 교동마을에 위치한 호우피해 찾아 급경사지에 포대를 쌓고 더 큰 피해를 막는 작업을 도왔다. 재무과 직원 20여명도 부안면 일원을 찾아 배수로 준설 작업을 진행했고, 붕괴된 사면 토사제거와 포대에 흙을 담아 무너진 도로변 급경사지를 복구했다.

성내면사무소 직원들도 이번 집중호우로 절개지 붕괴 위험이 있는 교동마을 농가를 방문해 대민지원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무장면 (주)태림건설 직원들은 자사 장비(덤프트럭, 포크레인)를 이용해 침수지역 토사 처리에 힘을 보탰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